

간협 ‘올해의 간호인상’ 최종녀 함춘녀심흥 원장

요양시설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훌륭한 간호사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부끄럽습니다. 지난 18년간 요양시설 간호사로서 외인구단처럼 일 해온 시간들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최종녀 함춘녀심흥 원장이 대한간호협회 ‘올해의 간호인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월 19일 개최된 제86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진행되었으며, 상금 500만원이 주어졌다.

최종녀 원장은 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사 역할 강화에 헌신해왔다. 2002년부터 포진 자혜의집, 청운실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등 다양한 요양시설에 몸담아왔다. 청운실버센터 원장으로 일하면서 데이케어센터의 기쁨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청운실버센터는 2009년 7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제1호로 인증을 받았으며, 평가에서 A 등급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서 총괄케어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어르신들의 신체·인지기능에 따라 효과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전산화했다. 특히 요양시설의 케어모형으로 △인지향상형(치매전담형) △관계친화형(일반형) △기능회복형(간호전담형) 등 3가지 유형을 적용했다. 간호중심 요양시설(전문요양실) 구축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요양시설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최종녀 원장은 “현장의 경험을 살려 요양시설 간호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함춘녀심흥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에 힘쓰고 있다. 최종녀 원장은 “어르신들의 24시간 생활패턴을 파악해 개인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기본

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녀 원장은 “앞으로 요양시설 간호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마련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녀 원장은 1985년 공주대를 졸업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노인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세 자녀 중 둘째가 간호사로 모녀 간호사 가족을 이루고 있다. 노인간호사회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최종녀 함춘녀심흥 원장이 대한간호협회 ‘올해의 간호인상’을 수상하는 모습

간협,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감사패

“표준임금체계 등 간호사 처우개선에 힘쓰겠다”

대한간호협회는 제8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상식은 2월 19일 열린 만찬에서 진행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신 감사패는 앞으로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열심히 추진해달라는 의미로 생각하겠다”면서 “그동안 제주도 간호사회와는 의료·돌봄분야의 여러 현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왔으며,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낮은 급여체계, 야간근무, 간호사 1인당 많은 환자 수 등 간호사들의 인격적 대우, 처우 및 근무체계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는 간호사들의 도외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모형을 세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대형 병원과 도내 병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간호사 표준임금체계를 연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가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급여체계 보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도민과 국민이 편안하게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롱면허, 경력단절 해소 방안으로 야간근무수당 도입을 준비 중이며, 도내 의료기관 신규채용 시 초과인건비 및 읍·면 등 근무기피지역의 간호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이 살고, 환자가 살고, 보호자가 살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대한간호협회와 제주도간호사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손을 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간호사 부족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간호인력 처우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대한간호협회장(왼쪽) 모습

간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선출

서순림 의장, 류말숙 제1부위원장, 황순연 제2부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새로 구성됐다.

신임 의장에는 서순림 전 대구시간호사회장(사진 가운데), 제1부 의장에는 류말숙 전 울산시간호사회장(왼쪽), 제2부 의장에는 황순연 부산시간호사회장(오른쪽)이 선출됐다.



서순림 의장은 대구시간호사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제1부 회장 및 제2부회장,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원장을 지냈다.

현재 경북대 간호대학 교수로 몸담고 있으며, 간호대학 학장을 지냈다.

류말숙 제1부 의장은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삼성어린이집 건강관리실을 거쳐 울산 현대병원 간호과장을 지냈다.

현재 울산시티병원 간호부장

이다. 울산시간호사회 회장, 울산시병원간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황순연 제2부 의장은 동아대 병원 간호부장을 지냈으며, 오는 4월 개원 예정인 동아대 신병원 간호부장을 맡았다.

현재 부산시간호사회 회장이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컨설턴트 및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병원간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협회 대표자회의 열려

“간호발전 위해 혼신의 힘 다하자”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가 제86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이어 2월 20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대표자 회의에는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 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간호발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자”면서 “특히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해인만큼 한마음으로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도간호사회는 물론이고 중앙회 차원에서도 간호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간호현장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회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제주도간호사회, 대의원총회 개최 한마음 협력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 송월숙)는 대한간호협회 제86회 정기대의원총회가 2월 19~20일 제주에서 순조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협력했다.

송월숙 제주도간호사회장은 “세월이 갈수록 간호사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마음을 다져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제주도간호사회 임원들이 함께 자리해 기념촬영을 한 모습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사 배치수준 높여 선순환 인력구조 만들어야

대의원총회 특강

“간호사 배치수준을 높이고 업무 강도를 낮추고 이직률을 떨어뜨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월 19일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86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 이어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간호인력 정책의 방향’ 주제 특강이 진행됐다. 김 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인력수급체계, 배출된 간호사 적정 배치, 간호대학 정원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첫째, 수급체계에서 결과의 숫자만 보지 말라.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배경이 맞는지 대해 늘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김 윤 교수는 “수급체계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체계의 결과는 과학적인 숫자가 아니다”라면서 “수급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 더 중

요하며,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수급체계를 반복적으로 실시해 수급체계가 갖는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이라며 “정책의 변화가 요인보다 정책 변화를 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배출된 간호사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 없이 간호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

김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하고, 간호사가 부족하니까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강도가 높으니까 이직률이 높은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이고 업무량을 줄여 이직률을 떨어뜨리고, 이직자가 줄어들면서 다시 배치수준이 올라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을 올리고 간호사가 보



김 윤 서울대 교수가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간호인력 정책의 방향’ 주제로 특강을 했다.

람차게 일하며 환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제도나 정책이 간호사 공급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무조건 간호대학 정원을 늘려 간호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김 윤 교수는 “배출을 늘리되, 배출된 간호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역에서 배출된 간호사가 그 지역에서 일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및 병원유형별 쿼터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간호인력 배출을 늘리지 않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타이밍”이라고 조언했다.

주혜진 기자 hjjo@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